

디자인과 경영 콘텐츠학습 태도를 기반으로 한 기업 경영자 교육의 효과 연구

조윤형*, 이상호**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자 교육 효율 제고를 위해 학습태도 모형을 실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분류된 학습자의 성격강점과 학습 친화력 강화와 학습태도 개선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다. 최근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경영자 재교육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연구자는 디자인과 경영분야 교과목을 접목하여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경영자 교육에 함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은 공히 학습자 성격강점이 친화력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친화력강화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학습태도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은 모두 학습자 성격강점이 학습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친화력 강화 변인이 매개변수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 디자인경영, 성격강점, 온라인수업, 오프라인수업, 친화력 강화, 학습태도 개선

Effect of Design & Business Content Class on the Improvements of Learning Attitude for Corporate Learning Program

Youn-Hyung Cho*, Sang-Ho Lee**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posals and the verific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mprovements of corporate manager's learning attitude for enterprises productivity and managerial effectiveness, the learner's familiarity and personal character strengths that are classified as positive psychology-based theory. For this study, researchers design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the AMOS analysis. And researchers conducted the interviews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of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below. First, both online and offline classes were identified as the learner's character strengths affect the positive effect to the learner's familiarity strengths. Second, the learner's familiarity affects the positive effect to improvements of learning attitude. And the last, the learner's character strengths and improvements of learning attitude are not significant effect each other, therefore researcher could be found that the role of mediating variables of the learner's familiarity strengths. In this study, researcher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iarity strengths and improving the learning attitudes needed for a desirable curriculum development considering the learners' personality factor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n ideal course of study when educator design a curriculum and contribute to a successful communication strategy.

Keywords : Design management, Character strengths, Online class form, Offline class form, Familiarity strengths, Improvements of Learning attitude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ang-Ho Lee
접수일:2013년 12월 27일, 수정일:2014년 02월 10일
완료일:2014년 03월 08일
* 경북대학교 예술학부 시각디자인과 교수

**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디자인&문화콘텐츠연구소
Tel: +82-51-663-5204, Fax: +82-51-663-5209
email: stevenlee@ks.ac.kr

1. 서론

최근 기업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영자 재교육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자세의 학습태도로 임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학습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경영효율의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자 교육효율 재고를 위해 학습태도 모형을 실증하여 실무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식 정보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online) 교육 시스템, 스마트 캠퍼스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학문의 여러 분야와 영역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강의실 없는 교육, 학습자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영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보조적 교육 형태가 아닌 오프라인(offline) 교육을 대체하거나 상호 보완적 교육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동안 이루어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2] [15] [17] [20] [13] [21]들은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두 교육 방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 분야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 친화력 강화 및 학습태도 개선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긍정심리학 분야의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성격강점을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후, 학습자들의 수업성향과 학업성취도를 활용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구성에 기초하여 학습자 개인의 긍정적 성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성격강점 요인이 학습자의 학습 친화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과학적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 가운데 각 학습자의 내재된 긍정적 성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에 대한 내재적 목적을 고취시키고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행동에 임하도록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디자인과 경영분야 교과목을 접목하여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분류된 학습자의 성격강점과 학습 친화력 강화와 학습태도 개선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기업 경영자 교육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2. 문헌 고찰

2.1 성격강점과 학습 효과

긍정심리학 분야의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학습자의 성격강점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며, 온·오프라인 교육 형태와 성격강점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성격강점과 학습효과에 대한 몇 가지 선행 연구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운스버리 등[19]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강점과 학업 성공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학업 성공의 척도로 학점 평균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로운스버리 등[19]의 연구 결과는 성격강점과 학업 성공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학업적 성취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24개의 성격강점 요소가 교육과 관련하여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에 긍정심리학의 성격강점 요소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 전공 학습 대상자 및 디자인, 교육,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각 3회씩 시행하여 디자인 교육과 연관된 6가지 성격강점 요소를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창순 등 [4]은 성격강점 요소 가운데 자기 통제력이 수업 참여도 및 학업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자기 통제력이 강할수록 수업 참여도가 높으며,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높았으며, 학업성적도 높았다. 하창순 등[4]의 연구는 자기 통제력이라는 성격강점 변인이 학습 참여도, 학업 성적 등 교육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하여 검증하였고, 하나의 성격강점 요소의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호너[18]는 여러 학습 유형을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학습자의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유형이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정보 기술이 이용된 여러 수업 방식과 성격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호너[18]의 연구는 텍스트 수업, CD-ROM 수업, VCR 수업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수업 형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MBTI 방식으로 성격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성격 요인이 학습 환경에 따라 학습 친화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바이너 등[16]은 상호 작용 TV를 활용한 수업에 등록한 164명의 대학생과 200명의 기존 오프라인 수업에 등록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유형에 따라 학습자들 사이에 성격강점 요인에 차이점을 확인하고, 학습자의 성격 유형에 따라 학습의 성공 여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상호 작용 TV 수업을 선호하는 학습자는 자기 만족도, 자율성과 같은 성격 요인이 강하였고,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학습자는 감정적 안정성, 내향성, 신중성 등의 성격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바이너 등[16]의 연구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유형에 따라 성격 요인의 영향에 의해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효과와 성격강점에 연관성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 문헌은 학습자의 성격강점이 학습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학습 유형에 따라 성격강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성격강점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환경이 있으며, 학습자의 성격강점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환경 하에서 학습할 때 가장 좋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격강점을 먼저 분석하여 학습 친화력 및 학습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 낸 성

격강점과 교육의 상관관계를 기업의 경영교육 현장에서 잘 활용한다면 학습후의 학습태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2 온·오프라인 학습 효과

기존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각각의 교육 환경에 따른 교수자, 학습자, 환경의 특성 등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각각의 교육 환경에 따라 단순히 수업만족도나 학업성취도 등의 학습 효과 측정으로 어떠한 교육 방식이 유효하다는 비교 방식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학습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구조화된 양적 척도를 통해 온·오프라인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전 연구 문헌들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재갑[12]은 대학생 832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가치, 만족도, 추천 의사 및 재수강 의사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서비스 품질은 신뢰성, 유형성, 확신성, 공감성, 반응성의 5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서비스 품질을 규명하였다. 강의의 서비스 품질은 재수강 및 강의 추천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습자의 선행 수강 경험에 의해 온·오프라인 수업의 강의 추천이나 재수강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사전 수강 경험 등에 따라 선호하는 수업 형태가 정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최미나[3]는 동일 교수자에 의해 동일한 강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강한 대학생 723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서 학습 환경과 학습 효과의 상관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 강의에 대한 재수강 선호도가 오프라인 강의의 재수강 선호도보다 높았으며, 고학년일수록 온라인 강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 방식의 선호도에 있어서 학년, 수강 경험 등 학습자 요인이 작용하며, 이러한 학습자 요인 및 학습 환경 변인이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한 학습자의 성격강점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 형태가 학습 친화력 강화 및 학습태도 개선에 관여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3 기업내 경영자 교육 연구

기업은 경영의 유형적 성과인 재무적 향상을 위해 본원적인 생산활동에 주력하지만,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조직문화와 학습역량, 그리고 기술, 브랜드와 같은 자산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9]. 강석진 등[6]은 경영자의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식생산성이 학습태도 및 자세, 학습역량 등으로 구성된다고 정리하였으며, 정원규[5]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자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며, 그중에서 기업윤리의 교육이 경영의 효율성과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경영자 교육의 만족과 재교육 의향에 관한 실증이 진행되었으나, 경영자 교육에 있어 긍정심리학 기반의 연구나 학습 태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드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자의 외적 및 내적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경영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선행연구의 연구에 공감하며, 경영 및 디자인 관련 수업의 성격강점과 친화력, 학습태도에 관한 실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경영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3. 연구방법

3.1 설문과 조작적 정의

3.1.1 개요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을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긍정심리학은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영성과 초월성으로 구성된 6개의 핵심 미덕과 상위 미덕 아래에 속한 24개의 성격강점으로 구성된 VIA 분류체계(Values-In-Action Classification)

를 채택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로운스버리 등[19]의 연구 결과는 24개의 성격강점 요소가 교육과 관련하여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며, 24가지 성격강점을 다루기에는 문제 영역이 광범위하고, 교육 분야에 정확히 연결하기에 어려운 강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와의 연관성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호기심, 학구열, 사회성 지능, 끈기, 자기통제력의 6가지 강점 요소만 선택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습자들의 성격 강점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성격강점이 학습 친화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증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분류한 후 본 연구를 위한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측정지표가 되는 설문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3.1.2 성격 강점

A. 호기심

새로운 경험, 환경, 현상 등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능력을 뜻한다. 호기심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것일 수도 있다.

B. 학구열

새로운 기술, 주제, 정보, 지식 등을 배우려는 개인의 동기 및 노력과 함께 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성향을 뜻한다. 학구열은 직업상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에서 얻은 지식이다.

C. 사회성 지능

사회성 지능은 나와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잘 분석하여 인지하고, 복합적 사회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양식을 분별하여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 강점은 친절이나 지도력 같은 강점의 토대가 되며, 자신의 직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D. 끈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표를 가지고 일을 완성해 나가는 능력을 뜻한다.

E. 자기통제력

본인의 감정, 욕구를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통제하여 행동하는 능력이다.

상기 성격강점의 측정을 위한 질문은 (1)세상

에 대해 호기심이 많음 (2)새로운 것을 배울 때 기쁘고 진율을 느낌 (3)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킴 (4)판단력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 이성적으로 사고함 (5)일을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걸 좋아함 (6)내 정서를 다스릴 줄 알 등으로 정리하였다([2] [3] [10] [11] [19] 참조).

3.1.3 학습 친화력

A. 소속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가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었는지를 의미한다.

B. 친밀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잘 모르던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지를 의미한다.

C. 공동체의식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제 수행 등의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호합이 중요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결과물의 도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를 의미한다.

상기 친화력 강화의 측정을 위한 질문은 (1) 배움에 대한 뿌듯함이 있음 (2)나의 역할이 크다고 느낌 (3)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 (4)모르던 친구들과 많이 알게 되었음 (5)친구들과의 교류가 결과물에 중요한 영향을 줌 등으로 정리하였다([2] [3] [10] [11] [19] 참조).

3.1.4 학습태도 개선

A. 흥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수업이 재미있고, 과제를 잘 수행해낼 수 있었는지를 의미한다.

B. 태도 개선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서적, 문헌 등을 열심히 조사하게 되었으며, 이 분야에 대하여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의미한다.

C. 참여도 개선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보다 더 열심히 듣게 되었는지,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아졌는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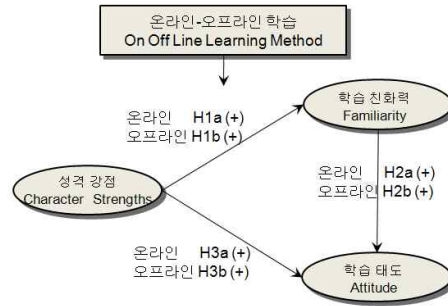
상기 학습태도 개선의 측정을 위한 질문은 (1)이 수업이 재미있어졌음 (2)과제가 현실적이라서 좋음 (3)관련서적, 참고문헌 등을 열심히 조사하게 되었음 (4)이 분야에 대해 새롭게 인지할 수 있었음 (5)내용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겼음 (6)처음보다 더 열심히 듣게 되었음 등으로

정리하였다([2] [3] [10] [11] [19] 참조).

3.2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상기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H1a.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성격강점은 친화력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오프라인 수업의) 학습자 성격강점은 친화력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a.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친화력강화는 학습태도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오프라인 수업의) 학습자 친화력강화는 학습태도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a.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성격강점은 학습태도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오프라인 수업의) 학습자 성격강점은 학습태도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조사대상 및 방법

실증을 위한 샘플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강의는 글로벌 리더, 비즈니스 매너 등의 경영관련 수업과 디자인 관련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형태는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인 서베이(survey) 방법을 선택하였다. 직접 면접 조사방법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자가 직접 면접 대상 전원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고 수거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이다.

연구자는 데이터의 기초통계 분석을 위해 SPS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도

출된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한 후, 분석된 정량적 계수를 근거로 해서 제시한 가설의 측정을 통해 수량화시킨 변인(variable)들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하여 증명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중 본 연구자는 1에서 5까지의 문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5점 척도의 방법으로 very negative(1점) - negative(2점) - netural(3점) - positive(4점) - very positive(5점)의 수열

<표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 측정모형의 평가

Variables of Online Class		Standard loading	T-Value	CR	AVE	Cronbach a
Character Strengths	cs1 ← character	0.293*	3.530	0.715	0.310	0.648
	cs2 ← character	0.675*	- a)			
	cs3 ← character	0.397*	4.600			
	cs4 ← character	0.401*	4.638			
	cs5 ← character	0.521*	5.648			
	cs6 ← character	0.598*	6.095			
Familiarity	fam1 ← familiarity	0.857*	11.661	0.879	0.596	0.864
	fam2 ← familiarity	0.693*	9.671			
	fam3 ← familiarity	0.872*	11.837			
	fam4 ← familiarity	0.664*	9.303			
	fam5 ← familiarity	0.675*	-			
Attitude	att1 ← attitude	0.876*	17.413	0.937	0.713	0.930
	att2 ← attitude	0.786*	14.499			
	att3 ← attitude	0.807*	15.138			
	att4 ← attitude	0.854*	16.653			
	att5 ← attitude	0.808*	15.160			
	att6 ← attitude	0.846*	-			

Summary of model fit indices : $X^2=171.787$, $df=116$, $p=0.001$, $X^2/df=1.481$, $RMR=0.035$, $GFI=0.920$, $NFI=0.923$, $RFI=0.909$, $IFI=0.973$, $TLI=0.969$, $CFI=0.973$, $PNFI=0.787$, $PCFI=0.830$, $RMSEA=0.046$. *) $P < 0.001$, a) fixed to 1

Variables of Offline Class		Standard loading	T-Value	CR	AVE	Cronbach a
Character Strengths	cs1 ← character	0.319*	3.845	0.720	0.310	0.648
	cs2 ← character	0.640*	-			
	cs3 ← character	0.444*	5.087			
	cs4 ← character	0.408*	4.753			
	cs5 ← character	0.527*	5.777			
	cs6 ← character	0.581*	6.149			
Familiarity	fam1 ← familiarity	0.837*	14.311	0.885	0.612	0.854
	fam2 ← familiarity	0.795*	-			
	fam3 ← familiarity	0.858*	14.793			
	fam4 ← familiarity	0.589*	9.245			
	fam5 ← familiarity	0.627*	9.935			
Attitude	att1 ← attitude	0.831*	17.166	0.936	0.711	0.922
	att2 ← attitude	0.775*	15.087			
	att3 ← attitude	0.696*	12.647			
	att4 ← attitude	0.847*	17.817			
	att5 ← attitude	0.866*	18.684			
	att6 ← attitude	0.888*	-			

Summary of model fit indices : $X^2=239.526$, $df=116$, $p=0.000$, $X^2/df=2.065$, $RMR=0.040$, $GFI=0.894$, $NFI=0.892$, $RFI=0.874$, $IFI=0.941$, $TLI=0.931$, $CFI=0.941$, $PNFI=0.761$, $PCFI=0.802$, $RMSEA=0.068$ *) $P < 0.001$

<Table 1>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변인의 측정 방법으로는 등간척도(interval scale)를 사용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등간척도로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원칙을 선택하였다. 긍정심리학적 변인 분석에서는 나와 매우 다르다(1점) - 나와 다르다(2점) - 보통이다(3점) - 나와 비슷하다(4점) - 나와 매

우 비슷하다(5점) 의 항목을 제시하여 한 항목씩 선택한 후, 성격강점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항목을 합산하여 10점 척도로 더하는 약식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특성과 측정모형의 평가

표본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총 250명 중 불성실한 응답지 21부를 제외하고, 229부를 수거하였다. 남성 85명(37.1%), 여성 144명(62.9%)으로 모두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자는 이론적 측정모형의 검증에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적 통계방법론인 구조방정식에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고, 각 개념에 대한 신뢰도와 단일차원성 평가를 통해 요인의 계량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7].

따라서 모형 적합도 평가의 지수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권장하는 적합도 정보인 X^2 값, X^2 값에 대한 p 값, X^2/df 값, RMR, GFI, NFI, RFI, IFI, TLI, CFI, PNFI, PCFI, RMSEA 등을 이용하였다[8].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X^2=171.787$, $df=116$, $p=0.001$, $X^2/df=1.481$, RMR=0.035, GFI=0.920, NFI=0.923, RFI=0.909, IFI=0.973, TLI=0.969, CFI=0.973, PNFI=0.787, PCFI=0.830, RMSEA=0.046로 나타났고,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X^2=239.526$, $df=116$, $p=0.000$, $X^2/df=2.065$, RMR=0.040, GFI=0.894, NFI=0.892, RFI=0.874, IFI=0.941, TLI=0.931, CFI=0.941, PNFI=0.761, PCFI=0.802, RMSEA=0.068로 나타났다. 두 모형 공히 X^2/df 값이 1보다 크고 3이하로 나타나고, RFI, IFI, TLI, CFI 등이 모두 0.9보다 크며, 특히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GFI, NFI 등이 0.9보다 커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간명 적합지수인 PNFI, PCFI 등이 0.6보다 크고, RMSEA, RMR가 0.08이하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표준화 경로계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t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구성개념간의 수렴타당도와 단일차원성이 확

보되었다. 한편, 개념신뢰도는 모든 요인에서 수용가능 수준인 0.6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신뢰도의 다른 측정치로 활용되는 평균분산은 추출값이 0.5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 본 연구 샘플의 경우 친화력과 학습태도 개선은 양호하나, 성격강점의 값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신뢰도 측정지표인 크론바흐 알파값은 모두 0.6이상을 상회하여 전반적인 모형에 대한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 구조모형의 평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X^2=183.431$, $df=116$, $p=0.000$, $X^2/df=1.581$, RMR=0.028, GFI=0.915, NFI=0.914, RFI=0.899, IFI=0.966, TLI=0.960, CFI=0.966, PNFI=0.779, PCFI=0.824, RMSEA=0.050로 나타났고,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X^2=235.284$, $df=123$, $p=0.000$, $X^2/df=2.028$, RMR=0.032, GFI=0.894, NFI=0.888, RFI=0.869, IFI=0.940, TLI=0.929, CFI=0.939, PNFI=0.758, PCFI=0.801, RMSEA=0.067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 평가지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각 가설별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우선 온라인 학습의 모형에서 가설 H1a는 t 값이 2.524, $p<0.05$ 로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성격강점은 친화력강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a가 채택되었다. 가설 H2a를 검증한 결과 t 값이 11.108, $p<0.001$ 로,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친화력강화는 학습태도 개선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a는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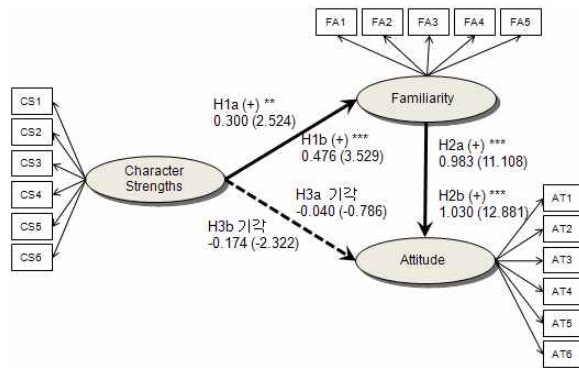
가설 H3a를 검증한 결과 t 값이 -0.786, $p>0.1$ 로,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성격강점은 학습태도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a는 기각되었다. 한편 오프라인 학습의 모형에서 가설 H1b는 t 값이 3.529, $p<0.001$ 로 오프라인 수업의 학습자 성격강점은 친화력강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b가 채택되었다. 가설 H2b를 검증한 결과 t 값이 12.881, $p<0.001$ 로, 오프라인 수업의 학습자 친화력강화는 학습태도 개선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b

는 채택되었다. 가설 H3b을 검증한 결과 t값이 -2.322, p<0.05로, 오프라인 수업의 학습자 성격강점은 학습태도 개선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b는 기각되었다.

상기 가설 중에서 학습자 성격강점이 학습태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는 H3a, H3b가 모두 기각된 것은 학습자의 성격강점에 따른 '친화력강화' 영향이 종속변수인 학습태도개선에 이르는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매개변수 역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격강점이 학습태도의 개선에 대해 음수의 결과를 보이는 것은 호기심, 학구열, 자기통제력 등이 강한 응답자가 이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성으로 인해 더 이상의 태도 개선이 어렵고, 성격강점이 친화력에 비해 태도의 개선에 대해 상대적인 영향으로 부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격강점이 약한 응답자가 오히려 태도의 개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H3b의 t값에서 오프라인 학습시 더욱 극명하게 부의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검증결과는 (그림 2) 구조모형의 검증에 도식화하였다.

(그림 2) 구조모형의 검증



(Figure 2) AMOS test of proposed model

연구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수업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AMOS의 집단비교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는데, 두 집단간 경로계수가 가장 차이가 나는 H1a와 H1b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의 성격강점이 친화력강화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차이가 0.462로 1.96보다 작게 나와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함의

<표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클래스의 구조모형 검증 결과

Path of Online Class		Standard loading	T-Value	Results					
Familiarity ← Character Strengths		H1a	0.300 **	2.524	Accept				
Attitude ← Familiarity		H2a	0.983 ***	11.108	Accept				
Attitude ← Character Strengths		H3a	-0.040	-0.786	N.S.				
Summary of model fit indices : X ² =183.431, d/f=116, p=0.000, X ² /df=1.581, RMR=0.028, GFI=0.915, NFI=0.914, RFI=0.899, IFI=0.966, TLI=0.960, CFI=0.966, PNFI=0.779, PCFI=0.824, RMSEA=0.050									
Path of Offline Class		Standard loading	T-Value	Results					
Familiarity ← Character Strengths		H1b	0.476 ***	3.529	Accept				
Attitude ← Familiarity		H2b	1.030 ***	12.881	Accept				
Attitude ← Character Strengths		H3b	-0.174 **	-2.322	N.S.				
Summary of model fit indices : X ² =235.284, d/f=123, p=0.000, X ² /df=2.028, RMR=0.032, GFI=0.894, NFI=0.888, RFI=0.869, IFI=0.940, TLI=0.929, CFI=0.939, PNFI=0.758, PCFI=0.801, RMSEA=0.067									
*) p< 0.1, **) p< 0.05, ***) p< 0.001, NS: not significant									
Method	x ²	df	x ² /df	RMR	RMSEA	GFI	IFI	TLI	CFI
Online Class	183.431	116	1.581	0.028	0.050	0.915	0.966	0.960	0.966
Offline Class	235.284	116	2.028	0.032	0.067	0.894	0.940	0.929	0.939

<Table 2> Results of Model estimated by AMOS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분류된 학습자의 성격강점과 학습 친화력 강화와 학습태도 개선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실증연구이다. 인과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어,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 형태와 더불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형태를 조절 효과적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성격강점 6요인으로 분석된 독립변수 요인은 종속변수로 분석된 학습 친화력 5요인, 학습태도 6요인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이 변수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수업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또한 학습 친화력 5요인은 학습태도 6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이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은 공히 학습자 성격강점이 친화력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친화력강화는 학습태도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학습자 성격강점은 학습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이를 통해 친화력강화 변인이 본 모형의 매개변수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경영자 교육에 있어서 학습태도의 개선이 교육의 효과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선행적으로 학습자의 성격강점과 친화력 강화를 통한 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자는 디자인과 경영분야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 학습태도 개선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고, 비록 대상은 경영자가 아니었음에도 간접적으로 학습태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느 지점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실제적인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들에 관한 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형성되어진 성격적 특징에 따라서 학습하는 동안 어떠한 학습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가 더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성격 요소를 고려한 바람직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성

격 요인별 학습친화력 강화 및 학습 태도 개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기업의 경영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학습자와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습자들의 성격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이 교육 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특성화된 교육 정책의 기반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은 경영자들이 재교육을 위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수업 형태의 변화만으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미래의 경영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과목 선택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샘플의 제약 등으로 인해 몇 가지의 한계점을 남겼다. 첫째,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의 집단간 차이가 확연하게 검증되지 못한 점, 둘째, 기업경영자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연구샘플을 회사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연구의 한계점이 샘플의 적정성/ 수량과 관련된 것이 다수인데, 향후 보다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과 충분한 응답자 샘플 확보를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을 추가 검증하는 후학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Bae, "The Perspectives of On-line Corporate Education(B2B) in Korea," KISDI IT FOCUS, Vol.8, pp.53-55, 2001.
- [2] Y. Cho, The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of Design Major Students in relations to Learning Preferences of Positive Psychology, SKKU Doctoral Dissertation, 2013.
- [3] M. Choi, "Analysis of Learning Effect in Learning Environment in Online and Offline Lectures by the Same Teache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13, No.4, pp. 5-23, 2007.
- [4] C. Ha, Kim, J., Choi, H. & Yoo, H. "The Relationships

- among Self-control, Class Engagement, Learning Time after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17, No.1, pp.181-200, 2006.
- [5] W. Jeong, “Some Philosophical Reflections and Suggestions on the Business Ethics Curriculum for CBA Students,” *PHILPSOPHY*, Vol.90, pp.159-190, 2007.
- [6] S. Kang, Chin, C., Lee, E., Kim, J. & Park, H. “A theory study of CEO’s Leadership, Organization Culture, and Knowledge productivity,” *The Journal of Woman & Management*, Vol.1, No.2, pp.47-76, 2009.
- [7] S. Lee,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for Satisfaction of Mobile Coupon Servic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13, No.3, pp.301-307, 2012.
- [8] E. Lee, & Lee, S. “A Study on the Viewing Experience on Guide Channel : Focusing on the Experience that affects Purcha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Research*, Vol.25, No.3, pp.10-19, 2012.
- [9] J. Roh, “Success Factors in Effecting Cultural Change in Organizations: A Cas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144, No.2, pp.27-44, 2010.
- [10] M. Seligman, (Translated by Kim, I.). *Authentic Happiness*. Mulpure, 2011.
- [11] M. Yoo, Collaborative learning for design problem-solving process(CLDP) in e-learning based visual communication design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6.
- [12] J. Yoo, A Study on Relationship Patterns of the Service Quality Variables for the University Online/Offline Lectures, Chung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1.
- [13] R. B. Anderson, & Mayer, R. E. “The Instruction animation helping student build connections between words and pictures in multimedi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4, pp.444-452, 1992.
- [14] R. Bagozzi,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in and industrial sales force : An examination of their antecedents and simultaneity,” *Journal of Marketing*, Vol. 44, No.1, pp.65-77, 1988.
- [15] A. D. Baddeley, “Working memory,” *Science*, Vol. 255, pp.556-559, 1992.
- [16] P. M. Biner, Binkb, M. L., Huffmanc, M. L. & Deand, R. 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ifferentiating and predicting the achievement of televised-course students and traditional-course students,”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Vol.9, No.2, pp.46-60, 1995.
- [17] P. Chandler, & Sweller, J. “Cognitive load theory and the format of instruction. *Cognition and Instruction*,” Vol.8, pp. 293-332, 1991.
- [18] J. M. Hoerner, “Emerging Information Technologies, Psychological Type, and Learning Styles: Evaluating Competing Methodologies for Teaching Television Lighting,”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Research Division of the Broadcast Education Association(44th, LasVegas, NV), 1998.
- [19] J. W. Lounsbury, Leslee A. Fisher, L. A., Levy, J. & Welsh, D. P. “An investigation of character strengths in relation to the academic success of college students,”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Vol.7, No.1, pp.52-69, 2009.
- [20] R. E. Mayer, & Sims, V. K. “For whom is a picture worth ten thousand words? Extension of a dual-coding theory of multimedi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6, pp.389-401, 1994.
- [21] A. Paivio, “Dual coding theory: Retrospect & current statu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ist*, Vol.45, pp.255-287, 1991.
- [22] M. P. E.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York: Mulpure Publishing Inc, 2002.



조 윤 형

1995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석사)
2012년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
술학박사)

1998년~현재: 경북대학교 예술학부 시각디자인과 교
수

관심분야 : 시각디지털콘텐츠, 디지털미디어, 이러닝,
디지털저작권, 디지털디자인 등



이 상 호

2003년 : Aalto University 경영학
과 (경영학석사)
2008년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
영학박사)

2010년~현재: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2013년~현재: 디자인&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미디어, 디지털정책,
소셜미디어, 디지털디자인 등